



김성철
한국고분자학회
자문위원장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된 지 어언 50년이 되었다. 한국의 고분자 산업 태동과 발맞추어 창립된 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고분자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대한 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등의 고분자 분과로 활동하다가 독립하여 학회가 발족되었으며 고분자 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학회 창립 당시 57명의 발기인 중 22명이 산업계에서 참여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고분자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우리 학회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1966년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PVC의 생산규모는 6,600톤/년이었으나 2025년에는 200여 배인 150만 톤을 생산하였고, PS는 1968년 3,000톤 규모에서 시작하여 2025년 210만 톤, LDPE는 1972년 5만 톤에서 시작하여 2025년 230만 톤, HDPE는 1972년 3만 5천 톤에서 시작하여 2025년 260만 톤, PP는 1972년 3만 톤에서 시작하여 2025년 450만 톤을 생산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5대 합성수지 평균 239배의 성장을 보였다. 한국고분자학회도 1977년 제1회 춘계 총회의 참가 인원 230명, 발표 논문 19편에서 2025년의 추계 총회에서는 참가 인원 2,350명, 발표논문 1,197편의 규모로 성장하여 지난 50년 동안 참가 인원 10배, 발표 논문 63배의 규모로 커졌다. 더욱이 창립 초기 1977년 예산이 9백만 원인데 반하여 2025년 결산은 총 23억원이 되어 재정적으로도 255배 커졌다.

한국고분자학회의 성장 배경에는 고분자 산업의 든든한 지원도 컸지만 초기부터 일본 고분자 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도 한몫을 하였다. 학회 창립 시 가장 젊은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1979년 2대 기획이사를 맡아 KIST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고분자심포지엄을 기획하였는데 1980년 제2회 한일 고분자심포지엄도 일본 경도대에서 개최되어 이를 계기로 양국의 고분자 학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일본 고분자학회는 그동안 미국, 유럽의 고분자 학자들과의 교류가 커서 우리 학회와 연계해 주었고 일본 경도대의 사에구사 교수가 IUPAC 고분자분과 위원장 재임 시에 IUPAC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1989년 개최하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를 계기로 한국고분자 학회와 국제 고분자학회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이제 지난 50년 동안의 튼튼한 반석 위에 서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다. 학회 초기에는 고분자 산업의 참여를 의식하여 1979년 “고분자 하계대학”, “플라스틱의 간단한 식별법”을 개설하여 고분자를 전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계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런 강좌들이 한국고분자학회가 학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산업계와도 소통하는 학회로서의 입지를 만들었다. 학회 간담회에도 관련 고분자 산업의 임원이나 연구소장이 참가하여서 산학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50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산업계와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 산업계 회원의 참가 독려와 산업계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고분자 재료가 범용 소재에서 앞으로는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분자학회의 여러 활동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지난 50년의 반석 위에서 더욱 도약하는 100년을 바라본다.